

JY 뛰고 반도체 끌고 新가전 밀고... “깜짝실적 이유있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언택트 바람에 반도체시장 호조 수요 늘면서 D램·낸드가격 상승 스마트폰 성적도 예상 뛰어넘어 이 부회장 ‘초격차 지휘’도 한몫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시장 성장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2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5조4750억원, 현대차증권은 5조60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이는 전년 동기 3조4000억원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2018년 4분기(7조77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진을 끝내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앞서 미국 마이크론 역시 최근 미국 회계 기준 3분기(3~5월)에 호실적을 거두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과는 달리 매출액이 전년비 13.58% 성장한 54억38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 가량 감소한 8억8800만달러였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버 업체들이 잇따라 설비를 늘리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D램과 낸드 등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강창진 세메스 사장. /삼성전자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3.31달러였다. 전년 동기보다 17.8%나 높은 가격이다.

6월 들어서는 재고 증가로 인해 상승세가 멈추긴 했지만,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덕분에 하락 전환을 피할 수 있었다. 관련 업체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지만, 다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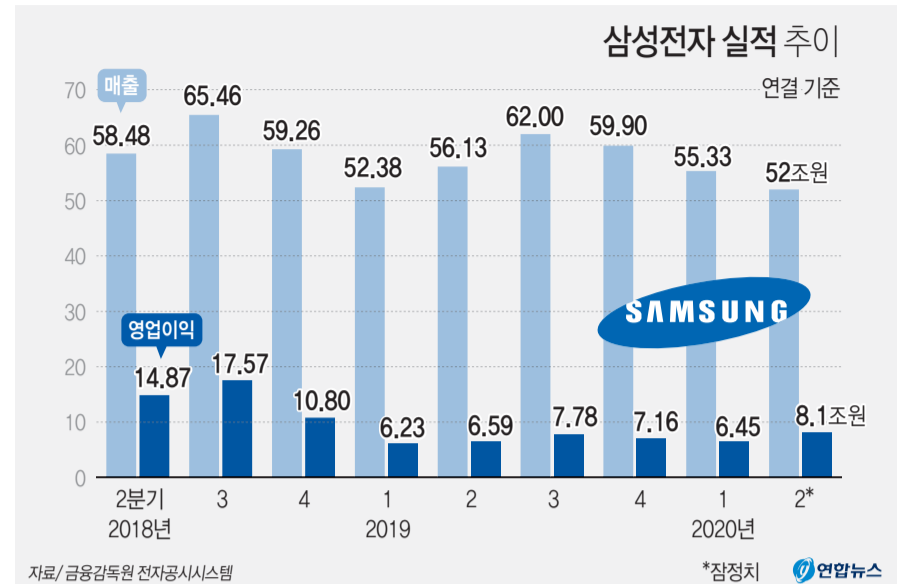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서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 시안 반도체를 선택했으며, 평택 사업장에도 EUV 라인 증설을 지시하며 ‘초격차’ 유지를 진두지휘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

습이다. 최근 협력사와 산학,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K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뿐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예상을 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은 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탓에 2분기 섣다운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이 예상됐지만, 섣다운 해제 후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깜짝 실적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IM부문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원 중후반대다. 당초 예상됐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4900만대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5400만대 가량을 판매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도 호실적에 공



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다.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CE부문도 영업이익을 6000억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7100억원)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2분기 절반 가까운 기간인 4~5월에 북미와 유럽 등 매장이 영업을 중지했던 만큼 깜짝 실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수요가 다시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도 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과 함께 에어컨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조기와 의류기 등 신가전 판매가 증



유출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 /샘모바일

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OLED 패널을 축소 공급한 데 따른 보상금 9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SK, ‘E-GMP’ 전기차 함께 만든다

>> 1면 ‘배터리로 뭉친 재계 빅4’서 계속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가 2021년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의 1차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하고 최상의 성능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E-GMP’ 기반의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탑재될 SK이노베이션 제품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전용 모델의 특징점들과 결합돼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2011년 첫 순수 전기차를 선보인 이래 지난달까지 국내의 누적 28만여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문 매체인 EV세일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 총 2만4116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 테슬라(8만8400대), 르노-닛산-알라이언스(3만9355대), 폴크스바겐그룹(3만3846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해 수소전기차 포함 세계 3위권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전기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026년 전기차 50만대(중국 제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혁신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로봇릭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기차에 필요한 최적화된 배터리 성능 구현을 위해 연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은 향후 전기차 전용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배터리 및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그동안 전기차-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사가 차세대 배터리 등 다양한 신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기본 AI 뛰어넘는’서 계속

양자 회로 체계적 설계 다양한 양자 커널 구현

연구팀은 이 같은 양자컴퓨팅의 장점을 활용해 데이터 특징 대비 기하급수적인 계산 효율성을 달성하는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저차원 입력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큐비트로 표현되는 고차원 데이터 특징 공간으로 옮긴 후, 양자화된 모든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간 커널 함수를 양자 중첩을 활용해 동시에 계산하고 테스트데이터 분류를 효율적으로 결정한다.

연구팀은 또 양자 회로의 체계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양자 커널 구현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커널 기반 기계학습에서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따라 최적 커널이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양자 커널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점은 양자 커널 기반 기계학습의 실제 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다.

연구팀은 IBM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다섯 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양자 커널 기반 기계학습 성능을 실제 시연을 통해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박경덕 연구교수는 “복잡한 비선형 데이터의 패턴 인식 등을 위한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활발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5대 시중銀, 상반기 기업대출 43조 증가

8.3% 증가... 건전성 관리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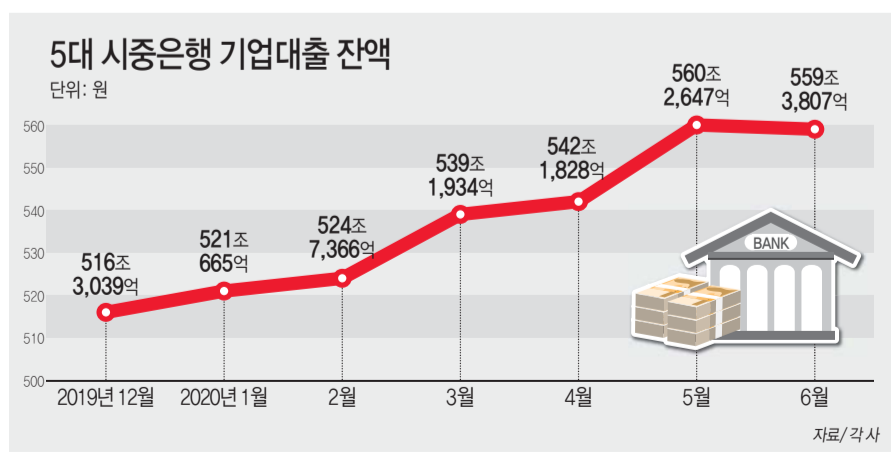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은행에 손을 내민 탓이다. 그만큼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원화 대출액은 총 1208조9229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

교해 68조8678억원(6.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총 559조3807억원으로 전년(516조3138억원)보다 8.3%(43조760억원) 늘었다.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21조600억원에서 133조1530억원으로 10.0%(12조930억원)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은 105조1265억원에서 113조5474억원으로 8.0%(8조4209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99조5757억원에서 106조622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97조844



억원에서 104조9261억원으로 각각 7.1%(7조464억원)과 8.1%(7조8417억원)씩 기업대출이 늘었다. 농협은행도

기업대출이 93조4572억원에서 8.2% 증가한 101조132억원을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